

# Question! 청소년을 위한 가톨릭 성교육

이성웅 세례자 요한 신부

## Q. 자연 주기법 vs 피임

신부님, 왜 가톨릭교회에서는 피임을 반대하는 거죠? 혼인의 목적은 부부애의 증진과 자녀 출산이잖아요. 피임을 하면 부부가 더 편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을 텐데, 교회는 왜 부정적 인가요? 피임을 하면 자녀 출산도 쉽게 조절할 수 있으니 좋은 것 아닌가요? 교회에서 피 임 대신 자연 주기법을 장려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A.

하느님께서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인간의 성(性)은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의 몸을 잘 들여다보면 하느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의 성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시다.

여성의 몸은 임신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임기라고 부릅니다. 가임기가 있기 때문에 자연 적인 방법으로 출산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신 자연적인 조절을 위해서는 부부 사이에 대화와 인내, 배 려가 필요하지요. 인간의 성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을 위한 마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욕망대로 하 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이용하는 행동이며,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고 맙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톨릭교회는 피임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부부가 서로 인내하고 기다려 줌으 로써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욕망대로 나 중심의 사랑을 하는 부부와 배우자에 대한 배 려를 바탕으로 이타적인 사랑을 맺는 부부를 비교해 봅시다. 어느 부부가 더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할까요?






이와 같은 성의 영성적인 측면을 다루어야 진정한 성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성교육에서 이런 부분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교육=피임 교육'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자. 대신 임신만 피하면 돼.'라는 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청소년들에게 심어 주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고귀한 인간의 성이 쾌락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린 듯해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 깊은 사랑과 만족, 행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느님께서 성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할 때, 칠판에 'SEX'라고 적기만 해도 학생들의 분위기는 아주 산만해집

니다. 이 단어를 보고 무엇이 떠오르냐고 학생들에게 물으면, 대부분 신체에 대한 표현을 언급합니다. 'SEX'라는 단어를 두고 성적인 행위부터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는 어떤 의미가 먼저 나올까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적인 행위라는 의미가 첫 번째일까요? 사전에는 성, 성별, 남녀 등 명사로서의 뜻이 먼저 언급됩니다. 그 이후 동사로서 성교를 의미한다는 설명이 이어지지요. 이러한 순서는 성의 첫 번째 의미가 남녀의 다름, 차이에 대한 상호 이해에 있음을 보여 줍니다. 상대 이성에 대한 상호 이해가 있을 때, 배려와 인내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한 자연 주기법은 '너'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우리'의 사랑을 더 깊어지게 합니다. 반면 피임은 성의 본질적인 의미보다는 '나'의 욕구와 욕망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구 피임약은 여성의 몸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피임약은 인공 합성 호르몬을 여성의 몸에 지속적으로 투입해서 수정과 배란, 착상을 막는 원리입니다. 당연히 여성의 몸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경구 피임약은 부작용도 많습니다. 두통, 생리량 감소, 배란 장애와 불임, 생식기능 장애까지 가져올 수 있지요. 하복부와 유방의 통증이나 월경 주기 장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응급 피임약으로 알려진 사후 피임약의 경우, 경구 피임약의 7-10배 수준인 고용량 프로게스테론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한 번만 복용해도 혈전,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성의 몸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피임약을 굳이 복용해 가면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몸을 배려하면서 자연적이고 건강한 모습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부부의 혼인 생활은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대화와 배려, 그리고 인내를 통한 사랑의 나눔으로 부부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갑니다. 그 안에서 태어나는 아기는 하느님께 영광이 되고 부부에게는 큰 기쁨이 되지요. 아름다운 정원은 자연 주기법을 바탕으로 한 부부의 관계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 정원에 함부로 들어가 꽃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아내의 생식력을 자각하는 남편은 가임기와 비가임기를 구분해서 조심스럽게 정원을 가꿉니다. 남편이 진정한 사랑을 위해 기다려 주는 모습을 보며 아내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 기다림과 인내를 바탕으로 사랑은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됩니다. 부부의 사랑은 더 끈끈해지고, 가정은 더 탄탄해지지요. 반면, 피임을 통해 나 중심의 사랑을 하는 부부는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지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기에, 그 정원은 흐트러지고 망가집니다. 순간적인 쾌락만 앞세우며, 부부의 사랑도 깊어지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과연 우리가 어떤 정원을 가꾸기를 원하실까요? 



**이성웅 세례자 요한 신부**  
대구대교구 소속 사제. 신학생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2011년에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St. Mary Seminary and Graduate School of Theology를 졸업하고(석사) 사제 서품을 받았다. 그 이후 수학을 계속하여 사목 신학을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대구대교구 4대리구에서 청년·청소년 사목을 담당하고 있으며, 틴스타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